

배당 자제령에도... 은행株, 사상 최대실적에 투자심리 꿈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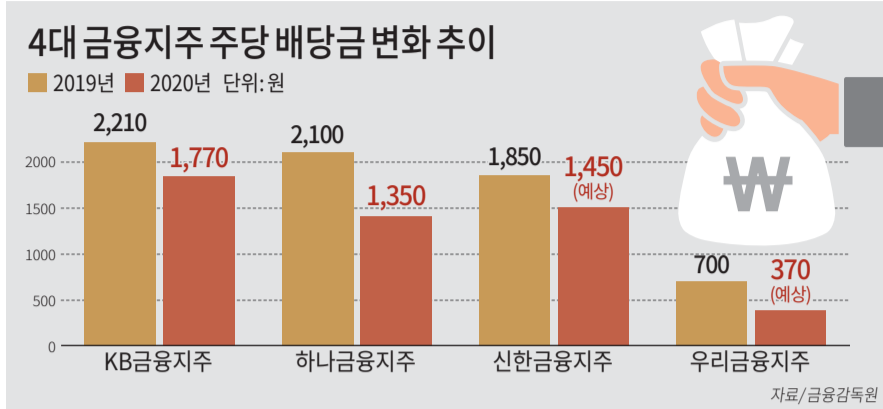
우리금융 제외 3개지주사 순익 ↑ 실적발표 후 은행주가 소폭 상승

배당 축소 불확실성 악재 기반영하반기 적극적 주주환원책 기대감

국내 금융지주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배당 규모 축소에 나섰다. 은행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 주가가 반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양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 KB·신한·하나금융지주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은 각각 3조4552억원, 3조4146억원, 2조6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0.3%, 10.3% 증가했다.

주로 은행 수익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



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이유로 수수료 수익을 금융지주에게 남겨줬다는 평가다.

◆KB·하나금융 배당 ↓...신한·우리금융 결정 보류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

성향을 기존 25~27% 수준에서 20% 이내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권고는 오는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하나금융지주는 배당금 규모를 하향 조정했고, 신한·우리금융지주는 3월 초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다. 대체로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20% 이내에서 배당 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KB·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배당 성향을 20%로 낮췄다. KB금융지주의 주당 배당금은 2019년 2210원에서 2020년 1770원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주당 배당금은 2019년 2100원에서 2020년 1350원(중간배당금 포함 1850원)으로 줄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 배당 성향은 글로벌 평균 배당 성향인 5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의 배당에 대한 의지 및 능력과 현재 처한 거시·규제환경 간의 온도 차이는 지속해서 국내 은행업종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 심리 개선... "한시적 권고 조치에 불교"

반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 이후 은행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금리 상승에도 국내 은행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1

일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8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은행지주의 수익률은 10.8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4.80%를 두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배당 축소 여부가 결정된다면 악재 기반영으로 인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시적 권고 조치이므로 배당제한 관련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배당 규제가 은행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배당 신뢰도를 낮추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한시적인 규제"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사주 매입 실시 및 반기배당 결정 등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이 기대된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흑석재개발 잡아라... 대형건설사 경쟁 '불꽃'

2구역, 현산-롯데 호시탐탐 노려
9구역, 현대-롯데 이어 삼성 가세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9구역 수주전에 대형건설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흑석2구역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9구역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이어 삼성물산이 가세해 수주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은 흑석9구역 내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 눈도장 찍기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도 흑석9구역 일대에 순차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이후 12년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다. 이곳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강변에 자리해 가장 좋은 입지로 통한다. 규모는 4만5229㎡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중앙대 등이 가깝다. 현재는 27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덕분에 용적률을 450% 이하까지 적용받아 재개발을 마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뉴스1

치면 1310가구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앞서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일반분양가와 용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 철학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은 600%까지,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진위에선 정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민간 재개발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다. 5%만 더 받으면 조합설립 요건(75%)을 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는 "공공재개발 사업 방향과 관련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위 측에서 처음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준다면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잡을 의향은 언제든지 있다"고 전했다.

흑석9구역은 오는 4월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5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획득하고 코로나19 변수가 없는 한 8월에는 새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흑석9구역은 흑석동 90 일대 약 9만 4000㎡에 아파트 1538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흑석9구역은 흑석뉴타운에서 가장 넓은 사업지를 보유하고 있어 흑석 뉴타운 내 대장주로 불린다. 조합은 최고 25층·21개 동·153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방안으로 사업시행계 획인가를 받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우건설, 비대면 협업 솔루션 '코코' 개발

현장조치 전 상황 실시간 추적 관리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간 비대면 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솔루션 '코코(COCO)'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진 기반의 협업 솔루션인 코코는 건설현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장의 이슈나 위험요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사용자와 공통태그를 선택해 담당자에게 조치 요청

할 수 있으며 업무 완료까지 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국내 21개 현장에 코코 테스트 버전을 배포해 시범 운영했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 작업을 마쳤다. 작업 일보와 사진 등 PC환경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해 PC버전도 만들었다. /정연우 기자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1위 매수

해외주식 Click

D램 가격 인상에 14위서 꺾중 테슬라, 첫 연간 흑자에도 4위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2월1~7일 기준)에 가장 많이 산 해외주식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로 나타났다. 2위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였다. 상위 10개사에는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친환경 관련,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이 자리했다.

9일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월1주차에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6360만달러·713억원)였다.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D램 가격이 오름에 따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상품은 지난주 14위에서 뛰어오르며 테슬라를 1위 자리에서 밀어냈다. 해당 종목은 2월8일(현지시간) 기준 전일 대비 9.29% 상승한 602.00달러에 장을 마쳤다.

2위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5578만 달러(625억원)였다. 이 종목은 미국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톱 다음으로 집중 매수한 종목 중 하나로 알려졌다. 서학개미들 역시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자로 분석된다. AMC 엔터는 지난주 순위 밖이었으나 단숨에 2위로 올랐다. 주가는 8일 기준으로 전장보다 9.52% 내린 6.18달러로 종료했다.

3위는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인 애플이었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5291만달러(590억원)였다. 애플은 지난주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켰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과 자

<2월1주차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종목>
(단위: 달러)

순위	국가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美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6360만
2	美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	5578만
3	美	애플	5291만
4	美	테슬라	4040만
5	美	TSMC주식예탁증서(ADR)	3013만
6	美	처칠 캐피탈 CORP IV	2597만
7	日	글로벌 X 디지털 이노베이션	2559만

율주행차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0.11% 오른 136.91달러를 기록했다.

순매수 규모 4위는 부동의 1위였던 테슬라가 자리했다. 개인의 순매수 금액은 4040만달러(451억원)로 전주 1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테슬라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전일 대비 1.31% 오른 863.42달러를 기록했다.

5위는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 주식예탁증서(ADR)로 개인이 3013만달러(336억원)를 순매수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다. 지난주 2위에서 세 계단 내려왔다. 해당 종목은 8일 전장보다 3.73% 뚝 132.55달러에 마감했다.

이 밖에 ▲처칠 캐피탈(CHURCHILL CAPITAL CORP IV, 2597만달러·289억원) ▲글로벌 X 디지털 이노베이션(GLOBAL X DIGITAL INNOVATI, 2559만달러·285억원) ▲아이셰어(ISHARES NATIONAL AMTFREEMU, 2500만달러·279억원)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INC, 2142만달러·239억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염재민 기자 yjm208@